

아쉬운 과학기술 특종기사

기자라면 누구나 특종 기사를 쓰기 바라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특종기사는 크건 작건 국익이나 관련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기자로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다. 관계된 사람의 눈물호소 앞에 첫 특종기사가 될 뻔한 것이 문혀버린 적도 있었다. 재미있고 유익하되 피해자가 없는 과학기술 특종기사가 많았으면 한다.

李 鍾 秀

〈기술평론가/본지 편집위원〉

취 재기자라면 누구나 특종 기사를 열망한다. 그러나 특종 기사를 쓴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기자생활을 수십년 해도 제법한 특종 기사 몇건 쓰기 힘든 일이다. 나도 언론생활 15년동안 특종 기사를 쓰려고 날뛰어 보기도 했지만 성사한 것은 가뭄에 콩나듯 아주 드물었다. 거기다가 특종 기사를 쓴다고 설치된 기자가 정부의 공보관이 되어 특종 기사를 쓰는 것을 막는 일을 했으니 사실은 특종 기사를 써구 저쩌구 할 처지가 못될 것이다.

특종 기사란 글자 그대로 특별한 종류의 기사 즉 남이 안쓴 기사, 다른 언론사가 보도하지 않은 기사를 말한다. 영어로는 스쿠프(scoop) 또는 비트(beat)라고 하는데 남보다 앞질러 쓰는 기사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런데 비트라는 단어는 때린다, 때려 부순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니 그말이 특종 기사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美的 대 과학기자 로렌스

취재대상을 추켜올리거나 칭찬성이 포함된 기사는 아무리 단독 취재해서 크게 보도되더라도 특종기사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친(등이라는 일 본말)기사라 하여 무엇이나 얻어먹고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이상한 눈초리로 기자를 보기조차 한다. 따라서 두들겨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을 특종기사라고 하는 것이 예사다. 만약 일급 비밀이라는 도장을 찍은 비밀문서 내용을 어떤 수단을 써서 몰래 기사화하여 특종기사로 보도되는 날이면 두들겨 맞는 것은 취재대상만이 아니다. 출입처라면 다른 출입기자가 그 기사를 읽고 한방 맞은 기분에 어깨가 축 처지게 된다. 그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의 편집국장, 해당부장, 데스크 등도 당했다하고 분통을 출입기자한테 터뜨릴게 분명하다. 물론 그런 류의 소동은 대 특종기사가 보도될 때에 한정되지만

과거 언론사가 한참 경쟁을 벌였을 시대는 가끔 있었던 일이었다. 세계 여러 언론사에서 쓰여진 특종기사에 관한 내막이야기를 담은 서적도 상당수 나와 있다. 그야말로 스릴과 서스펜스로 손바닥에 땀이 나게하는 결사적인 취재이야기가 얼마든지 있다.

윌리엄 L. 로렌스라는 미국 뉴욕 타임즈의 대 과학기자가 있었다. 1888년 생인 그는 하버드대학을 졸업했다. 이 공계 전공은 아니었다고 한다. 처음엔 뉴욕·월드에 입사해서 과학기사를 쓰는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 뉴욕 타임즈 옥스사장의 특청을 받고 미국 일간지 최초의 과학전문기자로 입사했다. 뉴욕 타임즈는 전통적으로 원자과학에 대한 기사에 강해서 1922년 12월 30일자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쓴 '원자를 폭발시키는 새로운 방법과 이러한 변질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인자...는 오늘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서 발표됐다...' 라는 기사를 뉴욕 타임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존스톤기사는 이 기사로 해서 1923년도 풀리처 보도부문상을 받았다. 원자력기사로 풀리처상을 받은 첫 케이스다. 윌리엄·로렌스기사는 원자력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는데 주력했다. 로렌스기사는 타사 4명의 기자와 함께 하버드대학 3백년간 학술활동을 보도하여 1937년도 풀리처 보도부문상을 수상했다. 로렌스기사가 수상한 기사는 원자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원자의 빌'이라고 불리울만큼 원자력기자로 대성해갔다.

하루는 시카고대학에 최초의 원자로를 건설했던 이탈리아출신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페르미 등이 원자폭탄 제조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장소에 로렌스기사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페르

미 등은 회의를 그만둘 수도 없어 흑판에 수식만 써가며 무언의 회의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로렌스는 그것이 원폭제조에 관한 것임을 금방 알고 그에 대해 질문을 던져 페르미 등을 경악케 했다는 것이다. 로렌스기자는 뉴욕 타임즈에 원자폭탄 제조 가능성을 예고하는 최초의 기사를 썼다. 큰 과학특종기사가 됐음은 물론이다. 미국 정부가 원자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맨해튼계획을 시작했을 때 로렌스기자를 어떻게 처우해야하느냐로 고민했다고 한다. 죽이지 않으면 포섭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뉴욕 타임즈의 발행인 아더 설즈버거한테 로렌스기자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정부의 급료는 신문사보다 낮아서 차액은 신문사가 메워달라고 했다. 그리하여 원자폭탄이 거의 완성돼 갈 무렵인 1945년 봄에 뉴욕 타임즈에서 로렌스기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보도되지는 못하지만 맨해튼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사는 열심히 썼다고 한다.

원자탄폭발 유일하게 목격

로렌스기자는 1945년 6월 16일에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원자력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최초의 원자폭탄 폭발을 목격할 단 한명의 기자였다. 이때 목격한 광경에 관한 기사는 정부의 해금이 1945년 8월 6일에 있었지만 9월 26일 에야 보도될 수 있었다. 그 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1945년 8월 9일 그는 B29를 타고 나가사키(長崎)상공에서 원폭투하현장을 취재하기도 했다. 그는 히로시마에 투하하는 첫 원폭투하 광경을 취재하려 했으나 뜻을 못 이루고 두번째 투하때 원자폭탄을 탑재한 더 그레이트 아티스트를 선도한 B29

중폭격기에 육군성 파견의 공식기자로 서 타고 앉아 취재를 했다. 그때 목격기사는 첫 원폭폭발에 관한 기사보다 빠른 1945년 9월 9일자 신문에 '운명은 나가사키를 선택했다'는 제목으로 보도돼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원폭에 관한 기사를 연재기사화 하기도 했고 「제로의 새벽」이라는 단행본으로 내기도 했다. 로렌스기자는 1946년에 또다시 이러한 기사에 대해 풀리처 보도부문을 받았다. 그가 맨해튼 계획 추진중 취재한 기사중 상당수가 햇빛을 못보고 말았다고 한다. 과학특종기사를 많이 쓴 대표적인 과학기자의 예로서 윌리엄 로렌스기자를 소개해 본다는 것이 너무 길게 된 것 같다. 70살이 넘어서까지 그가 과학부장으로 활약한 것은 알지만 그 후 소식은 자세히 알아 궁금한데가 있긴 하다.

대 특종기사쯤 되면 국익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 로렌스기자가 취재한 맨해튼계획에 관한 기사를 뉴욕 타임즈가 특종으로 마구 보도했다면 적국인 독일이 원폭을 제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 아닌가. 뉴욕 타임즈는 양식이 있는 신문이었다. 유명한 군사기자 볼드윈이 원자폭탄을 폭발시켜 지구 주위를 방사능대로 둘러싸게 하는 실험을 한 사실을 취재했을 때 소련서 그 사실을 안 흔적이 나타날 때까지는 보도를 삼간 일도 있었다.

집요한 애원에 단념도

큰 특종기사 뿐 아니라 작은 특종기사도 쓰는 기자의 입장에선 피해자를 생각하여 주저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특종도 혈기 왕성한 젊을 때나 쓸 수 있지 나이먹으면 마음이 약해져

기사화를 스스로 억제하는 수도 있게 된다. 그뿐 아니라 취재대상자의 집요한 애원 또는 흥정도 특종기사 쓰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한국일보에 입사한 지 얼마 안되는 풋내기 기자로서 한국 최초의 연구용원자로 트리가마크Ⅱ형을 수납하는 건물의 벽에 큰 금이 간 사실을 발견하고 취재를 시작한 일이었다. 과학부라지만 부·차장도 없이 혼자 뿐이었으니 보고할 것도 없다 싶어 건물을 설계한 유명한 설계자를 만났다. 생맥주집으로 나를 끌고 들어간 그 설계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잘못이니 용서해 달라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닌가. 그뿐 아니라 원자력원의 여러 사람이 매달리며 봐달라니 첫 특종기사가 될 뻔한 것이 묻혀버리게 됐다. 그러나 한국일보에 게재된 중앙관상대에 관한 기사, 조선일보 과학부 차장때 기사화한 국가의사시험문제에 잘못있다는 기사는 결국 관계자의 퇴직에까지 연결되 당사자들에 대해 두고두고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피해를 내지 않는 과학기사를 사회면, 심지어는 정치면 톱으로 내 보낸 일도 있었다. 엄격한 의미의 특종기사가 아닐지 모르지만 재미있다는 말을 듣기도 한 그런 기사는 착상을 잘하고 부지런히 자료를 뒤지면 만들어지게 된다. 아무튼 특종기사는 기자의 명예이고 언론기관의 자랑이다. 그리고 독자도 특종기사 읽기를 좋아한다. 재미있고 유익하되 피해자가 없는 과학기술 특종기사가 각 신문에 많이 실리게 되었으면 한다. 과학기술기자들의 연구와 노력이 달려 있긴 하나 신문사 자체에서 그런 기자를 키워주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